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2016. 2. 12(금)	
		작 성 · 문 의	국정운영실 통일안보정책과 과장 박용우 / 서기관 이유진 (Tel. 044-200-2125)
엠바고	즉시 사용		

“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즉시 가동”

- 황 총리, 관계장관 회의 개최하여 개성공단 중단 이후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

□ **황교안 국무총리**는 **2.12(금)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관계부처* 장관 회의**를 **개최**하였다.

* 경제부총리, 통일부·국방부·산업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외교부1차관

□ 오늘 회의는 **개성공단 중단 이후 후속상황 및 안보·경제 상황 등**을 종합적으로 **점검**하고, **입주기업 지원 방안**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△ 통일부는 「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상황과 후속조치」, △ 국방부는 **「북한의 군사동향 및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」** △ **기재부**는 **「최근 경제 동향**과 향후 대응 방향」 △ **산업부**는 「정부정책자금 지원, 세제 및 공과금 지원, 고용 지원 등 **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책」 등**을 보고하였다.

□ 오늘 회의에서는 「현장기업지원반」 및 「기업전담지원팀」(각 기업별로 4명 구성)을 오늘부터 즉시 가동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 조치를 적시에 취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.

○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**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북한 관련 요인과 결합될 경우에 대비**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·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**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면서, **필요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**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※ 첨부. 황교안총리 모두말씀

첨부 **황교안 총리 모두말씀(전문)**

□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,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감행하였고,

○ 앞으로도 핵개발 중단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.

□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위협입니다.

□ 북한 당국이 오로지 핵과 미사일, 무력도발에 기댄 채 체제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고,

○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핵포기를 시킬 수 없고 북한의 변화도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, 정부는 이러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.

□ 지난 2013년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고 공단 출입을 제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우리 국민 7명을 사실상 볼모로 삼고

○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음식물, 의약품 전달마저도 일체 거부함으로써, 이들의 안위에 큰 위협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.

○ 그 당시 정부는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피말리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.

□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잘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인 과제를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
□ 결정 당시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우리 국민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서

○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에 최우선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고 우리 국민을 최단기간내에 철수토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
□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흘 동안 철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, 이후 2월 15일까지 유관기관 인원이 귀환하는 단계적 철수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.

□ 그러나 북한은 2월 11일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30여분의 시간밖에 주지 않고 개성공단 폐쇄와 동결, 그리고 우리 인원 전원을 추방하며,

○ 개인물품 이외 어떠한 것도 가져나갈 수 없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강압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 귀환을 최우선으로 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최단시간 내에 우리 국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.

□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 하에,

○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은 매우 엄중하며,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

○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○ 과거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와 국민이 마음을 합쳐 대응해 나감으로써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